전국 첫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목포대 임근완씨

"젊은이들이 지역 문화재 지켜 후손에 전해야죠"

"방학 중에 토익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문화재를 지키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전남 문화재 지킴이'를 자원한 임근완(30·목포대 행정학과 3년)씨의 말이다.

지체장애 불구 사회봉사 적극참여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생들을 문화재 보호에 투입하는 프로그램. 지난 3월 해당 대학들과 자원봉사 학점 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학교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로 모집했으며 참여 학생에게 2일 동안 지역문화재 탐방 혜택도 주어진다.

임씨는 오는 30일까지 나주와 순천지역 문화재 지키기 봉사활동에 나서는 40명의 학생 가운데 한 명이다.

나주 향교에 배치된 임씨는 "숭례문과 낙산사 화재 참사를 지켜보면서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조상이나 후손들을 위해 현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단지 봉사에만 그치는 활동이 아닌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체장애(6급)가 있긴 하지만 평소에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주다가 탈곡기에 손이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손을 자유롭게 쓰기 힘들다. 하지만, '나'보다 '우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한국 사회가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언제든 봉사활동 현장으로 달려오곤 했다.

"문화재 소실은 대부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나뭇가지 하나를 꺾는 행위에서부터 문화재를 함부로 가져가는 행동이 숭례문 화재와 같은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보거든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문화재 중요성 시민에 홍보"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는 각 지역에서 숙박을 하며 문화재 청소와 문화재 주변 배수로 정비, 창호·벽지 도배, 낡은 기와와 벽체 보수, 오솔길 정비 등 수리를 하게 된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목포대·순천대·동신대·대불대 등 도내 대학생 40여명이 2기로 나눠 참가한다. 1기는 나주 향교를 중심으로 나주목 관아와 금성관·미천서원·나주역사 등에서 16~21일까지, 2기는 순천 송광사 일대 문화재를 대상으로 25~30일까지 진행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원광대 의료봉사대 곡성서 봉사활동

원불교 곡성교당(주임교무 강문성)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회장 주성재)의 초청으로 온 원광대 의료봉사대는 지난 13~15일 곡성 레저문화센터에서 하계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GS칼텍스 보육원생 초청 해양스포츠 체험

GS칼텍스(회장 허동수)는 최근 여수 웅천해변공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여수보육원과 삼혜원 원생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GS칼텍스는 이 행사를 지난 2005년부터 6년째 펼치고 있다. 〈GS칼텍스 제공〉

"무등산 옛길 산책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무등산관리사무소에 감사 편지

지난 4월 광주 무등산 옛길을 찾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가 당시의 감동을 적은 감사의 편지를 무등산관리사무소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 4월 12일 광주를 방문하고 대사관 직원들과 무등산 옛길을 탐방 한 뒤 나흘 후 당시 무등산관리사무소 임희진 소장에게 영문편지를 보냈다.

스티븐스 대사는 편지에서 "무등산을 방문하는 동안 임 소장과 무등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무등산 옛길(The hiking paths)은 인상적이었고 무등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 "무등산 옛길을 산책한 후 막걸리 한잔을 나눠 마신 것은 기뻤고, 또한 우리가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 기뻤다"고 산행 소감을 전했다. '막걸리'는 직접 한글로 적기도 했다.

이후 임 소장은 감사 표시로 참외와 무등산에서 재배되는 작설차를 스티븐스 대사에게 선물했고, 스티븐스 대사는 5월27일 후의에 감사하는 답장을 보내왔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글 편지에서 "보내주신 참외를 감사히 받았고, 의재 허백련에 관한 책은 흥미로웠고 춘설차는 그 명성대로 매우 향기로웠다"며 "무등산 등반의 기회가 다시 한 번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어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앞두고 같은 달 2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임 소장을 초청하는 초청장도 보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미스코리아 진 정소라 상금 2000만원 기부

2010 미스코리아 진 정소라가 상금 2000만원 전액을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스코리아 사무국이 17일 밝혔다.

정소라는 "진이 된 뒤 '앞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같은 생각이라고 응원해 주셨다"고 말했다. 2003년 건립된 국제백신연구소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국제단체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전 명예회장 등이 70% 정도를 출자하고 한국 정부가 부지를 제공했다.

인사

◆광주여자대학교

▲교무입학처장 김형훈 ▲기획홍보처장 정성옥 ▲교무부처장 정민영 ▲기획홍보부처장 이형하 ▲정보통신원장 황의철 ▲작업치료학과장 박웅식 ▲미용과학과장 나명석 ▲사회복지학과장 허정철 ▲보건의료공학과장 조정란

한일 대학생 한자리서 화해·공생 길 모색

日서 '성신학생교류 2010 섬머스쿨'

'한일 미래구축 포럼-성신학생교류 2010 섬머스쿨'에 앞서 조선대·고려대·와세다대 학생 대표들이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올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해와 공생의 길을 모색한다.

일본 와세다대학과 조선대·전남대·고려대 학생 등 양국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동안 일본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에서 열리는 '한일 미래구축 포럼-성신학생교류 2010 섬머스쿨'이 바로 그것.

이 프로그램은 성신과 신의의 교류를 주창한 18세기 조선통신사 '아메노모리 호슈'의 정신을 계승하고, 1914년 우리나라에 산림 기사로 와 한국의 민예를 사랑해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가 한국의 흙이 된 일본인 '아사카와 타쿠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포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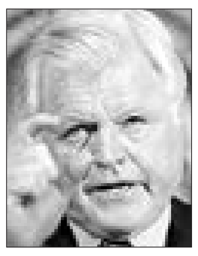
이 행사는 2006년 학생교류 협정을 맺은 고려대 일본연구센터와 와세다대 아시아연구기구가 젊은 세대가 평화와 공생의 가교가 되자는 취지로 추진해온 것에 조선대가 합류해 지난해 처음 치러졌으며 올해는 전남대가 합류해 두 번째로 열린다.

한일병합 100년인 올해는 '한일병합 100년을 넘어서'란 주제를 가지고 와세다대 학생 20명·조선대 10명·고려대 10명·전남대 5명 등 대학생 45명과 일본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형 암살땐 세상 무너지는 느낌"

故 에드워드 케네디 회고록서 밝혀



"형들이 이뤄낸 성과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은 그저 형들을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도 애쓴 시간처럼 느껴진다."

뇌종양 투병 끝에 지난해 8월 별세한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전 미국 상원의원의 회고록 '케네디가의 형제들'(현암사 펴냄)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케네디 전 의원은 20세기 미국 정계를 주름잡았던 케네디 가문의 4남5녀 가운데 막내다. 1963년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과 1968년 대선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숨진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이 바로 그의 형들이다. 맏형인 조 주니어는 2차 대전 군 복무 중 비행기 사고로 숨졌다.

케네디 전 의원은 50여년 간 모아둔 일기와 메모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한 회고록에서 정치명문 케네디가의 남다른 가정교육과 사랑, 비극적인 가정사와 자신의 정치 역정, 형들에 대한 추억 등을 밝혔다.

케네디 전 의원은 아버지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 집에 울보는 없다'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아버지의 조언 덕분에 그는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추측이나 비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세간에 알려져 있는 케네디가에 대한 잘못된 소문과 오해도 바로잡았다.

15살 차이가 난 둘째 형 케네디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면서 1963년 그가 암살당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무너져 정처 없이 떠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중략)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슬픔을 마음 속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김영희씨 장남 대석(사법연수원생)군 김태영(란체스터 원장)·최명자씨 장녀 명륜(서울 방배초 교사)양=21일(토) 오후 2시 메리어트 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동창·동문회

▲수도방위사령부(수경사) 제30경비단, 제1경비단 호남 전우회 모임 및 모집=21일(토) 오후 6시30분 광주 상무지구 동해해물탕. 062-373-9218, 010-2274-6400(기우성 임시회장).

종친회

▲가락광산구 종친회(회장 김명호) 월례회=20일(금) 오전 11시 종친회관 2층 대회의실. 062-944-195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 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 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리학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모집

▲클라리넷& 색소폰 회원 모집=30일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8시 광주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김순덕 노래교실 회원 모집=30일부터 12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4시30분 광주동구문화센터. 062-225-8700.

▲한국노인대안학교 퇴직 후 30년 노후생애준비학교 학생모집=노후생애변화, 생활영어, 웃음치료. 교육기간은 10월부터~12월까지(3개월·전액무료) 자격은 고졸이상은퇴자, 학습결격없는자. 원서접수는 23일~9월20일, 본인지참(원서,이력서,주민등록 각1매) 동부경찰서옆 MBC교육원 5층. 062-223-1357, 019-9152-5023.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엠마우스복지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에서 여성장애인 및 자녀 대상으로 18일(수)까지 총 8회 경제교육프로그램 진행예정 현재 모집. 선착순 모집(참가비 무료) 062-524-7728.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자 모집=미술미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부음

▲안복덕씨 별세 송명기((주)용산전력 회장)·웅기(전 서울시이사관)·환기(용산전력 대표)·광기(법무사)·영기(자영업)·덕기(노안중 행정실장)·복희씨 모친상=발인 19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박금심씨 별세 조춘환·삼신·명순·만단씨 모친상=발인 19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민영도씨 별세 대식(국토 디자인)·동식(순천교도소)·양님·양숙씨 부친상=발인 19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한정의씨 별세 박태규·홍규·양님씨 모친상=발인 18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최영두씨 별세 인오·진오씨 부친상=발인 18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철순씨 별세 영일(조선대학교)·형백((유)신영산업)·영단·중예·순단씨 부친상=발인 18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주경식 님(남/81세)
子/子婦 :주태영·박윤자, 재영·이효숙 규현·박은선
女/婿 : 주귀순·이보홍, 희순·문염수 현순·김명식, 정순·이영진 맹순·박종호, 명순·장영칠
•호실 : 201호 •발인 : 8월18일 •장지 : 화순도암

故 박막동 님(여/84세)
子/子婦 : 이등준·김경순, 현준·고광자 문수·심부효
女/婿 : ·구찬우, 이경례·박경하 이경님·임근원
•호실 : 101호 •발인 : 8월18일 •장지 : 화순동면

故 이근배 님(남/89세)
子/子婦 : 이효덕, 귀덕·임승순 女/婿 : 이순희·차영국 •호실 : 101호 •발인 : 8월18일 •장지 : 영락공원

마음까지 편안한 - 금호장례식장 ☎ 062)227-4000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박태준 씨 모친상 김만연·김석환·박현 씨 빙모상 발인 : 8월18일(수)9시 장지 : 담양 고서면 선영 연락처 : 250-4403

▲김형곤·김성용 씨 부친상 미망인 이행자 발인 : 8월19일(목) 9시 장지 : 화순군 사평면 선영 연락처 : 250-4410

▲김평우·재선·보연·재일·창복 씨 모친상 김재철 씨 빙모상 발인 : 8월18일(수) 8시 장지 : 장흥군 장흥읍 선영 연락처 : 250-4409

▲염왕열 씨 부친상 이형기·레이몬드 씨 빙부상 발인 : 8월19일(목) 8시30분 장지 : 보성군 문덕면 선영 연락처 : 250-4412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